



승진! 그 달콤한 고지를 향해.

이성재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김민수 - 군청 복지과 주무관 (30세) /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청렴하고 성실한 직원
 최탁원 (과장) - 군청 복지과장 (52세), 공무원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승진에만 몰두하는 직원,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다.
 권장비 - 군청 복지과 선임 직원으로,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 (40세), '장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우락부락한 얼굴에 덩치도 커서 외모에서 위압감이 느껴짐. 하지만 성실하고 의리가 있다.
 팀장, 직원들 - 팀장 (45세), 직원들 (30대 중후반), 성실한 공무원들

시놉시스

1. 기획 의도

보이기식 업무, 과도한 의전, 불필요한 이벤트 등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관행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 특히 이런 불필요한 관행의 많은 부분이 개인적 욕심에 의해 시행되면서 인력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자 했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거나 목격한 내용을 약간 과장된 설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며,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많아야 사회가 바로 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2. 줄거리

군청 복지과에서 아동보호시설(보육원)을 담당하는 김민수 주무관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모범적인 직원이지만, 그의 상관인 최탁원 복지과장은 오직 자신의 승진만을 위해 일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복지과에서는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바닷가를 여행하는 '해피 투어'를 실시하는데, 김민수 주무관은 담당자로서 아이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심성의껏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과장은 '해피 투어'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승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군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해피 투어'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자신의 승진 발판으로 행사를 이용한다. 청렴하고 성실한 민수의 행동과 자신의 승진만을 생각하는 과장의 행동은 결국 군수의 귀에 들어가고, 모든 사실은 알게 된 군수는 과장을 호되게 꾸짖는다. 그리고 특별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민수를 특별승진시킨다.

S 1. 아동보호시설 (보육원)

-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아동보호시설 내부가 보인다.
- 군청 복지과 공무원 김민수, 보호시설 직원들(5명)이 아이들(20명 정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 있다.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등)
- 민수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자, 아이들 표정이 밝아진다.
- 아이들이 민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민수가 답해 주자 만족한 듯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
- 이를 바라보는 보호시설 직원들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S 2. 아동 보호시설 사무실

민수와 보호시설 직원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 보호시설 직원 1 : 김민수 주무관님이 오시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보호시설 직원 2 : 우리는 일부러 김 주무관님 오는 날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면 요녀석들이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는 것 같더라고요. 잠꼬대하면서 주무관님을 찾는 녀석들도 있어요.
 보호시설 직원 3 : 작년에 주무관님이 바쁘셔서 우리 시설 오기로 하고, 하루 미룬 적 있었죠? 그때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웃음)

- 보호시설 직원들 칭찬에 민수는 씩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보호시설 직원 4 : 김 주무관님! 올해도 복지과 계속 계실 거죠? 우리는 김 주무관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날까 걱정입니다.

보호시설 직원 5 : 그나저나 김 주무관님도 이제 승진하셔야 할 텐데.....

민수 : (웃으며) 아직 승진하려면 2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보호시설 직원 1 : 그런데 아이들이 1박 2일 바닷가 가는 거 있잖아요? '해피 투어'라고 하던가요? 그거 올해도 계획되어 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민수 : 그럼요! 우리 복지과에서 아주 신경 쓰는 업무입니다.

S 3. 군청 복지과 사무실

- 사무실 회의 탁자에 팀장, 민수, 권장비 주무관, 복지과 직원 3명이 앉아 있다.
- 팀장은 민수가 기안한 문서를 보고 있다.

팀장 : 그래, 아이들을 위한 '해피 투어'를 알차게 잘 계획했구먼. 고생했어! 역시 김 주무관이야!

장비 : 보호시설 직원들도 김 주무관 칭찬이 자자합니다.

직원 1 : 그런데..... 팀장님! 이번 '해피 투어' 계획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팀장 : 보고는 해야겠지. 어차피 결재는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쓴웃음을 지으며)

이런 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잖아?

직원 2 : 하긴, 자기 승진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팀장 : 좌우간 오늘 다들 고생했어. 특히 김 주무관이 요즘 고생이 많지? 자! 자! 내 오늘 그런 뜻에서 저녁에 한턱 쏘지!

- 민수를 포함한 직원들 손뼉 치며 좋아한다.

S 4. 삼겹살집 (그날 저녁)

- 복지과 직원(10명 정도)들이 삼겹살을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다.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장비 : (팀장과 잔을 부딪치며) 오늘 '해피 투어' 계획안 과장님 결재받으셨나요?

팀장 : 응! 근데, 오늘 좀 이상하데. (고개를 가웃거리던 후) 그냥 건성으로 보고 결재할 줄 알았는데, 서류를 한참 동안 보더라고. 그럴 양반이 아닌데 말이야.

직원 1 : 오늘 술 한잔한 김에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 과장님 문제가 많아요. 공무원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직원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저 생각하는 거라고는 자기 승진! 승진뿐입니다.

직원 2 : 맞습니다. 과장님 머릿속에는 승진밖에 없다니깐요. 언제 우리하고 회식 한 번 하는 것 봤습니까? 늘 자기 승진에 도움 줄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저녁에 술 마시잖아요. 업무만 해도 그래요. 그저 생색하고 표시 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직원 3 : 지난달에 우리 군에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식 맺은 것만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복지과가 중소기업하고 협약해서 뭐 크게 도움 되는 일이 있나요?

직원 4 : 협약 내용도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협약식 할 때 군수님이 참석하고, 그러면 과장 본인이 뭐 큰일 한 것처럼 보이니까, 군수님한테 점수 따려는 거죠.

장비 : 우리 과장님이 쓸데없이 별이 이벤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거창하게 행사하면서, 기자들 부르고 군수님 참석시키고. 그냥 보여주기식 업무라니까요.

직원 5 :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쏟아붓는지……. 그 돈으로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 맛난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 팀장, 직원들 말에 수긍한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

-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약간 흐른다.

팀장 : (억지로 웃음 지으며) 자! 자! 직장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좋은 사람하고만 근무할 수 있겠어? 우리 건배나 하자고.

- 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 잔을 부딪친다.

장비 : 솔직히 말해서, 승진은 우리 김민수 주무관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1 : (손뼉을 치면서) 그럼! 내가 군수라면 내일 당장 우리 김 주무관, 부군수로 승진시킨다.

직원 2 : 그래,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는 진국 중의 진국! 김민수 주무관! 김민수 주무관 없으면 우리 복지과는 정말 큰일 난다고. 아니, 우리보다 우리 군 복지시설 아이들은 누가 돌봐? 아이들이 김 주무관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형, 오빠라고 부르다며?

직원 3 : 좋아! 우리 김민수 주무관을 위해 건배하자고!

- 민수 숙스러워하고,

- 직원들이 잔을 들어 건배하려는 순간, 팀장 스마트폰 벨이 울린다.

- 스마트폰에 뜬 발신자를 본 팀장의 얼굴에 짜증이 번진다.

팀장 스마트폰을 받으며 네 과장님 사이 아 그냥 : () , ! () , 직원들과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사이) 예.

(사이) 예…….

장비 : 과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전화야?

- 통화하는 팀장을 궁금한 표정으로 일제히 바라보는 직원들.

팀장 : (아까보다 더 짜증 난 표정)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드리지요.

- 팀장이 전화를 끊자, 직원들 시선이 모두 팀장에게 집중된다.

장비 : 무슨 일입니까? 과장님이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합니까? 지금쯤 높은 양반들하고 술 마시며 아부하고 있을 시간인데.

팀장 : (약간 신경질적으로 술잔을 단숨에 비운 후) 쟤장! 일 났구먼! 일 났어!

직원 1 : 아, 글썄 무슨 일입니까?

팀장 : 오늘 김 주무관이 기안해서 결재받은 '해피 투어' 있잖아?

직원 2 :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할 예정이잖아요?

팀장 : (한숨을 한번 쉰 후) 군수님이 참석하신다는구먼!

직원들 : (일제히 놀라며) 군수님이요?

장비 : 이거야말로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네. 아니, 갑자기 군수님이 왜 참석하신다는 거야?

직원 3 : 그림이 딱 그려지네. 우리 과장님이 잔머리 굴린 거야. 잘 생각해 봐! 요즘 우리 복지과에 이렇다 할 이벤트가

없었잖아. 승진을 앞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 어떻게든 뒷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으니 답답했겠지. 그러던 차에 오늘 결재하다가 '해피 투어'에 마음이 간 거야. 이걸 어떻게든 엮어 군수님께 잘 보일 이벤트로 만들려는 거지.

팀장 : 어쩐지 오늘 결재하면서 서류를 유심히 보더라고.

민수 : (답답한 표정으로) '해피 투어'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불편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군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텐데요.

직원 1 : 그래, 군수님이 오시면 신경 쓸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 식사부터 시작해서 잠자리까지…….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며 수행해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직원 2 : 솔직히 군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 그나마 걱정이 덜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라고. 1박 2일 동안 군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나대겠어?

팀장 : 오늘은 이만 여기서 끝내지.

장비 : 에이, 팀장님! 좀 더 마시자고요. 이렇게 열 받는 날 안 마시면 언제 마셔요?

팀장 : (한숨을 쉬 후) 과장님이 내일 아침 이 건 때문에 직원들 일찍 나와서 회의하자는군. 내일 일찍 나오려면 오늘은 이만해야지.

직원들 : (일제히 짜증 난 표정을 지으며) 젠장!

S 5. 군청 복지과 사무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

- 회의용 탁상 중심에 과장이 앉아 있고, 복지과 직원들이 양옆에 앉아 있다.

- 최탁원 과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해피 투어' 서류를 보고 있다.

- 평소보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직원들은 피곤한 표정이다. (일부 직원은 하품을 한다.)

과장 : 아주 착실하게 계획을 잘 세웠구먼. 대형버스를 타고 군청에서 출발한 뒤, 우리 군청 연수원이 있는 인천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바닷가 구경하고 인근 명소 둘러보고, 저녁을 먹은 뒤 연수원 대강당에 모두 모여 게임하고……. 근데 몇 가지 보완을 좀 해야겠어.

- 과장의 말에 직원들 아무도 대꾸하지 않자, 과장이 직원들을 쳐다본다.

- 직원들은 과장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과장 : (직원들 태도를 무시하며) 일단 군수님 동선을 정해야겠어. 군수님은 당일 아침 1호 차를 타고 따로 연수원에 가실 거야. 연수원에서 군수님이 주무실 방부터 잡아야겠네. 직원 두 명이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군수님 숙소 냉장고에 군수님 드실 음료수와 간식거리 좀 미리 챙겨놓도록 해.

민수 : 과장님! 아시다시피 '해피 투어'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복지과 직원 모두가 동원돼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직원이 먼저 연수원에 가면, 그만큼 인력이 빠져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과장 : (약간 발끈하며) 아니! 그럼, 지금 군수님 수행을 대충 하겠다는 거야? 김 주무관! 지금 제정신이야?

민수 : (물러서지 않는다) 이 행사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아이들 챙기는 게 우선이지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합니다. 지금 군수님 수행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비 : (민수를 거든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군수님을 부른 건 과장님입니다. '해피 투어'는 군수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왜 굳이 군수님을 불러서 일을 만드십니까?

- 과장, 장비를 노려보며 뭔가 말을 하려다,

장비의 덩치와 외모에 기가 꺾인 듯 이내 마음을 접는다.

과장 : (직원들 의견을 무시하며)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 군수님도 참석하시니까, 아이들 중 몇 명 미리 정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괜히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군수님 평소 취미가 무엇인지,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은 무엇인지 등 평범한 질문 하도록 시켜! 그리고 기자들 불러서 기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고.

민수 : (화가 나서 목소리가 조금 커진다) 과장님!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그냥 아이들 편하게 밥 먹도록 놔두자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편하게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장비 : 그리고 뭐 이런 걸 갖고 기자들 부릅니까? 기자들 부르면, 그 사람들 식사도 챙기고 잠자리도 챙겨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과장님! 정말 왜 이러세요? 바쁜 행사에 가뜰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일을 더 만들면 어찌자는 겁니까?

- 과장, 민수와 장비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장면이 나온다.(목소리는 들리지 않음)

- 이를 보는 직원들 얼굴에 짜증이 드리운다.

-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S 6. 어제 그 삼겹살집 (그날 저녁)

- 팀장을 제외한 어제 모였던 직원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다들 화가 난 표정이다.

장비 : '해피 투어'는 무슨 '해피 투어'야? 이름 바꾸자고. '과장 승진 투어!' 이게 딱 맞겠네.

민수 : 상사 지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아이들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과장님 승진에 아이들이 이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심한 말인가요?

장비 : 심하긴 뭐가 심해! 딱 그 말이 맞는구먼!

직원 1 : 팀장님도 오늘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침에 회의할 때 보니 화가 나는 걸 꼭, 꼭 참느라 표정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직원 2 : 과장님이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하니 어쩔 수 없었겠지 팀장님도 오늘 이 자리 오고 싶어 하시는 눈치던데.

장비 : 지금쯤 과장이 우리 팀장님 달라고 있겠지. 직원들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좀 잘 다독여 달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 쪽으론 수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잖아.

- 직원들 일제히 한숨 쉬고 술잔을 비운다.

S 7. 군청 마당 ('해피 투어' 당일 아침)

- 대형버스 한 대가 보이고, 버스 주변에 밝은 표정의 복지시설 아이들이 보인다.
- 군청 복지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이들 버스 탑승을 돕고 있다.
- 민수가 군청 건물에서 급히 나와 버스로 다가간다.
- 민수를 보자 아이들이 환호하고, 민수는 아이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준다.

민수 :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저것 지시를 해서…….

장비 : 죄송하긴! 바쁘데 쓸데없는 지시를 하는 과장이 문제지. 보나 마나 아이들 얘기는 하나도 안 했을 거야. 군수님 얘기만 했지?

- 장비의 말에 민수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 직원들이 다시 아이들 버스에 태우고, 짐을 싣는다.
- 민수도 다정한 모습으로 아이들 고개를 쓰다듬으며 버스에 태우고 있다.
- 군청 마당에 군수를 태우러 1호 차가 들어오고, 잠시 후 군수가 군청 현관에서 나온다. 옆에 과장도 있다.
- 군수는 인자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고생 많다.”는 인사를 건네는데, 과장은 직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군수에게만 굽신거린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신경 쓸 거 없다는 모습으로 군수를 차에 태운다.

장비 : (고까운 표정으로) 우리 과장 손금 지워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여기까지 들려!

- 장비의 말에 직원들 한바탕 웃는다.
-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오는 아이가 있어 민수가 아이를 부축하며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데, 1호 차 옆에서 과장이 부른다.
- 민수는 아이를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고, 짜증을 애써 감추며 과장에게 간다.
- 과장 : 내가 깜빡했는데, 지금 군수님 방에 가서 군수님 가방 좀 갖고 오게. 군수님 책상 오른쪽 옆에 보면 검은색 가방이 있을 거야.

민수 : (결국 짜증을 숨기지 못한다) 아니?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모두 아이들 버스에 태우는 거 안보이십니까? 안 그래도 군수님 챙겨야 한다고 아침 일찍 직원이 2명이나 연수원에 가는 바람에 일손이 부족한데, 저한테 꼭 그걸 시켜야 하나고요?

과장 : (화를 버럭 내며) 아니? 과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금 항명하는 거야?

군수 : (과장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최 과장! 무슨 일 있는 거요?

과장 : (비굴한 모습으로 군수 쪽을 향해 굽신거리며) 아, 아닙니다. (민수에게 인상을 쓰며 어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고갯짓한다)

민수 : (군청으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젠장!

S 8. 달리는 버스 안

- 민수를 중심으로 복지과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아이들 너무 좋아한다.
- 아이들이 민수에게 “오늘 너무 좋아요!” 등 말을 건네고, 민수는 밝은 웃음으로 모두 대꾸해 준다.

S 9. 아귀찜 식당

- 점심 식사를 위해 군수, 팀장, 복지과 직원,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다.
- 군수와 팀장의 표정은 싱글벙글이지만, 복지과 직원과 아이들 표정이 밝지 않다.

군수 : 아귀찜 맛이 아주 좋구먼!

팀장 : (군수 칭찬에 기분이 좋아서) 여기가 전국적으로 소문난 맛집입니다. 군수님 아귀찜 좋아하시는 거 알고 어렵게 예약했습니다. 특히 군수님,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아귀찜이 매운 걸로 유명해요. 매우면서도 감칠맛이 돌죠. 이 집만의 독특한 맛입니다.

- 밥 먹는 아이들 얼굴이 보인다. 다들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 어떤 아이는 처음 보는 아귀찜을 젓가락으로 들추어 보며 ‘이게 뭐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어떤 아이는 아귀찜 한 점 집어 먹고 매워서 인상을 쓰며 물을 마신다.
- 아이들 모두 아귀찜에는 손을 안 대고 밑반찬으로 맛없이 식사를 하고 있다.

아이 1 : 민수 형! 이게 무슨 음식이예요? 난 처음 봐요.

민수 : (미안한 표정) 응! 아귀찜이란 건데 먹을 만해.

아이 2 : 이거 너무 매워요. 먹기 싫어요.

아이 3 : (역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우린 돈가스가 좋은데……. 작년에 갔던 돈가스집 정말 맛있었어요. 올해도 거기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민수 :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응……. 근데 사정이 좀 생겨서…….

장비 : (일부러 과장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저기, 높은 아저씨 앉아 있지? 저 아저씨 입맛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 거야. 저 아저씨가 아귀찜 좋아하거든.

- 과장, 장비를 흘끗 노려보지만, 장비는 신경 쓰지 않는다.

S 10. 바닷가

- 바닷가에 도착한 복지과 직원과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성을 짓고, 조개를 줍는 내내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 민수는 아이들과 틈에 끼어 같이 조개를 줍고 있는데, 멀리서 과장이 큰소리로 민수를 부른다.

(군수는 과장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바닷가 모래사장을 거닐며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민수는 한숨을 쉬고 애써 짜증을 감추며 과장에게 다가간다.

과장 : 아이들 몇 명만 데리고 군수님께 가도록 해. 기자들하고 사진 찍어야 하니까. 좀 키 크고 잘생긴 아이들로 데리고 와!

민수 : 아이들 지금 잘 놀고 있는데 굳이 이래야 합니까?

과장 :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 친구가 아침부터 계속 왜 이리 삐딱하게 나와! 과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꼬우면 당신이 과장하면 될 거 아니! (그러다가 군수 눈치를 보고 목소리를 낮춘다)

어서 데리고 와!

- 잠시 후 군수 과장 복지과 직원 아이들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찍는다.

- 군수와 과장의 표정은 밝지만, 복지과 직원들 표정은 어둡다. 특히 아이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기자 : (아이들을 보며) 재! 재!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어린이들 표정이 왜 이래? 활짝 웃어야지?

김~~치~~.

과장 : 그래, 활짝 웃어야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 사주지.

- 아이들 마지못해 억지로 웃는다.

S 11. 횃집 (그날 저녁)

- 횃집 방안에 군수, 과장, 팀장, 복지과 직원, 아이들, 기자들이 앉아 있다. 상 위엔 회를 비롯한 음식이 푸짐하게 놓여 있다.

- 군수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자 모두 잔을 들어(아이들은 사이다 잔으로) 건배한 후,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아이 1 : 되게 맛있다.

아이 2 : 그래, 나 사실 아까 점심 제대로 못 먹었어. 아귀탕인가 하는 게 너무 맵더라고. 배고파서 혼났어.

- 아이들과 복지과 직원들, 낮에 아귀탕 집에서 있던 안 좋은 기억을 지우고, 다들 맛있게 회를 먹고 있다.

과장 : (자리에서 일어나)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행사를 계획하느라 고생하신 복지과 팀장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 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리둥절해서 일어나 짧게 건배사를 한다.

- 팀장 건배사가 끝난 후 아이들이 음식을 좀 먹으려 하는데, 또 과장이 일어나 민수를 지목하며 건배사를 하라고 한다.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자꾸 제동을 거는 과장 때문에 아이들 표정에 실망이 드리운다.

- 그런 아이들 표정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민수가 건배사 한다.

과장 : (또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는 이번 우리 군 행사를 널리 홍보해 주실 기자님께 건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자들을 보며) 기자님! 우리 군수님 신문에 멋지게

실어주실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신경 써 주시는 군수님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군수 표정을 살핀다.)

장비 : (옆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군수 앞에서 아양 좀 그만 떨고, 밥 좀 먹자! 밥

좀 먹어! 이 웬수 같은 과장 놈아!

- 옆에 있는 복지과 직원들 모두 웃는다.

- 그런데 여자아이 한 명(가희)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안색이 영 좋지 않다. 하지만 아직 이를 눈치챈 사람이 없다.

S 12. 연수원 군수 숙소 (그날 늦은 밤)

- 군수, 과장, 연수원장과 일부 직원들이 모여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복지과 직원과 아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과장 : (여전히 굵신거리는 모습으로) 오늘 행사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다 군수님께서 참석하신 덕입니다. 군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군수 : 근데 말이야……. 아까 점심 먹을 때 보니, 아이들이 아귀찜 잘 먹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아이들 먹기엔 아귀찜이 좀 매웠어.

과장 : (당황하며) 아…… 아닙니다. 아이들도 아주 좋아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먹었으면 하던걸요.

연수원장 : 아이들에게 아귀찜이 매웠을 수도 있는데…….

과장 : (연수원장에게 눈을 흘기며) 먹고 싶은 거 다 먹이며 오냐 오냐 키우면 아이들이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아이들 아귀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 같이 자리한 연수원 직원 중 과장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끼리 서로 비웃음을 주고받는다.
- 그때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과장 : 이 밤중에 누구지? 들어와요!

- 방문이 열리고 팀장이 들어온다.

팀장 :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과장을 보며) 드릴 말씀이…….

S 13. 연수원 군수 숙소 앞 복도

- 복도로 나온 과장과 팀장.

과장 : (귀찮다는 표정) 왜?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나를 보자는 거야?

팀장 : 오늘 온 아이 중 한 명이 배탈이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과장 : 뭐? 아니,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병원에 입원을 해? 분위기 잘 나가고 있는데.

팀장 : 군수님께 보고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 :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군수님 오늘 행사 잘 끝나서 흐뭇해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거야?

팀장 : 그래도 나중에 아시면…….

과장 : 그러니까 팀장!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지. 절대 군수님이 오늘 행사에 환자가 생겼다는 걸 몰라야 해. 군수님은 내일 군청에 복귀할 때까지, 아니 복귀하고 나서도 오늘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 흐뭇한 기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팀장 : (말문이 막혀) …….

과장 : 그럼,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알 테니, 이만 가봐! (군수 숙소로 들어간다.)

팀장 : (황당하다는 표정) 저렇게까지 승진이 하고 싶을까?

S 14. 가희가 입원해 있는 병실 (그날 밤 11시)

- 가희가 링거를 꽂은 채 병실에 누워 자고 있다.
- 가희가 누운 침대 옆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 잠시 후 가희가 눈을 뜬다.

가희 : (힘없는 목소리로) 물……. 물 좀…….

민수 : (반가워하며) 가희야 정신이 들어? 물? 가희야 물 먹고 싶어?

- 정수기에서 물을 떠 와 가희를 일으킨 후 물을 먹여주는 민수.

민수 : 가희야! 이제 좀 어때?

가희 : (힘은 없지만,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다) 이제 배 안 아파요.

민수 : 다행이다.

가희 : 민수 오빠! 오늘 밤 제 곁에 있어 줄 거죠?

민수 : 그럼, 당연하지. 아픈 가희를 두고 내가 어딜 가겠어?

가희 :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고마워요. 나, 그럼 좀 더 잘게요.

민수 : 그래, 꼭 자!

가희 : 내 손 잡아줘요. (민수가 가희 손을 잡자, 가희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며) 나, 이다음에 커서 민수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민수 : (웃는다)

- 장비,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장비 : 김 주무관! 여긴 내가 볼 테니 가서 눈 좀 붙여!

민수 : 아닙니다. 가희랑 약속했어요. 곁에 있어 주기로요.

- 그때, 의사 들어와서 가희의 상태 살핀다.

민수 : (의사에게) 선생님! 좀 어떤가요?

의사 : 걱정하지 마세요. 장염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 괜찮습니다. 아침에 퇴원해도 됩니다.

민수 :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 : 아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나 봅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던가…….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었던지요.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이 매운 음식 잘못 먹고, 이런 증세로 가끔 오곤 합니다.

장비 : (의사에게 안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망할 놈의 과장! 군수님 비위 맞추려고 그 매운 아귀찜을 아이들 먹게 하다니…….

의사 : (민수를 보며) 그런데 이 아이, 선생님 친동생인가요?

민수 : (조금 당황하며) 아닙니다. 하지만 친동생이나 다름없어요.

장비 : (민수의 등을 한번 쳐주며 격려한 후, 의사를 보며) 우리 김 주무관이 담당하는 아동 시설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니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 의사,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희를 바라보는 민수.
- 의사는 그런 민수를 인자한 얼굴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본다.
-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의사는 민수에게 미소를 보내고 병실을 나간다.

- 새벽 6시를 가리키는 병실 시계 보인다. (시간이 지나감을 표현)
-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가희.
- 민수는 가희의 손을 잡고, 가희가 누워있는 침대에 얼굴을 붙인 채 옆드려 자고 있다.
- 민수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손. 장비가 민수를 깨우고 있다. 민수 부스스 일어난다.

장비 : (비닐봉지를 내밀며) 커피랑 샌드위치야.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라고 하고 싶지만, 가희를 두고 밖에 나가 밥 먹을 사람도 아니고 해서 내가 사 왔어. 이 미련한 친구야! (미소)

민수 : 감사합니다.

장비 : 어서 먹고, 가희 퇴원 절차 밟도록 해. 이따 버스가 9시에 병원으로 올 거야. 그때 같이 타고 군청으로 복귀하자고.

민수 : 다른 애들은 좀 어떤가요?

장비 : 자네만 찾고 있어. (미소 짓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런데 이번 행사는 정말 아니었어. 작년에 봐! 아이들이 얼마나 돈가스 좋아했어. 올해도 꼭 그 집 가자고 애들이 그랬는데 (인상을 찌푸리며) 그런데 아귀찜이 뭐냐고? 그 매운 걸 아이들이 좋아했겠어? 결국 가희처럼 탈 나는 아이도 생기고 말이야. 좌우간 과장 그 인간, 자기 승진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놈이라니까. (가희를 한번 보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잘 노는 아이들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억지로 사진 찍고, 아이들 저녁에 회 맛있게 먹는데 과장 하는 짓 봤지? 군수에게 잘 보이려고 뭘 놈의 건배를 그리 많이 시켜. 아이들 즐겁게 밥 먹는데 그냥 두지 말아야.

민수 : 과장님도 가희 아픈 거 아니요?

장비 : 팀장님이 어젯밤에 보고했어. 고약한 사람! 과장은 아이 아픈 거 관심도 없더라. 아픈 아이 있다는 걸 군수님이 알면 걱정해서 기분 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군수님까진 모르실 거야.

민수 : (한숨을 한번 쉬고) 우리 군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데...... 과장님 같은 사람이 곁에 있어서 군수님 눈과 귀를 막아 버리니 딱한 일입니다.

장비 : 누가 아니라? 지금 가희가 아픈 거 알아봐! 군수님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오실 분이시. 문제는 과장이야. 자기 승진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자기 승진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이야.

민수 : 아이, 선배님도 그 표현은 좀 심해요. (웃음)

장비 : (웃으며) 좀 그런가? 하지만 과장이 문제는 문제잖아. 이번 행사만 해도 그래.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아이들은 뒷전이고, 군수한테 알랑거리서 승진할 생각만 하잖아. 솔직히 이번 행사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이들에게 쓰일 그 돈이 과장 승진을 위해 쓰이지는 꼴이잖아. 군민들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인데 말이야.

민수 :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제 생각도 선배님과 같아요.

- 가희 누워서 곤히 자는 모습 보이며 F.O

S 15. 군청 (2주일 뒤 아침 출근 시간)

- 군청 건물, 마당, 건물 현관이 차례로 보인다.
- 삼삼오오 모여 출근하는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S 16. 복지과 사무실

- 팀장, 장비, 직원 2명이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민수는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다)

장비 : 팀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어제 오후에 특별인사위원회가 열렸다면서요?

팀장 그래 갑자기 : , 군수님이 소집해서 열렸다고 하더라고.

직원 1 : 인사위원회가 이렇게 갑자기 열린 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뭐 중요한 안건이 있었나 보죠?

직원 2 :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우리 과장님 특별승진하는 거 아닐까요?

장비 :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인간이 승진하다니..... 그것도 특별승진? 그건 재앙이야, 재앙!

직원 1 : 그런데 세상일이 다 우리 마음 같나요? 솔직히 생각해 봐요! 과장님이 그동안 승진하려고 뒷사람한테 얼마나 손바닥 비벼가며 아부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고깝게 보지만, 뒷사람들은 과장님이 자기 입에 있는 혀처럼 움직여 주니 얼마나 좋게 보았겠어요? 2주 전 '해피 투어'만 해도 그래요. 과장님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아이들도 재미없었지만, 군수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수님 먹고 싶은 거 다 예약해 놓았지, 기자들 불러다 놓고 생색도 냈지. 안 그래요?

- 직원 1의 말에 모두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다들 씩씩한 표정이다.

장비 : 우리 군수님 정말 큰일 났어. 그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우리 과장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 과장 때문에 우리 군수님 욕먹을까 걱정이야. 자유당 때 봐!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결국 그 사달이 난 거잖아.

- 그때, 팀장 자리에 있는 전화벨 소리 울린다. 팀장, 자리에 가서 전화 받는다.

팀장 : 네, 복지과 김청수 팀장입니다. (갑자기 긴장한다) 아! 군수님! 네, (사이) 네, (사이) 네? (놀라면서 민수를 본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 팀장 전화를 끊으면서까지 민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 복지과 직원들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팀장 얼굴과 민수 얼굴을 번갈아 본다.

팀장 : 김민수 주무관! 지금 어서 군수님께 가보게!

민수 : (놀라면서) 네? 군수님께요? 제가 왜요?

팀장 : 나도 모르겠어. 좌우간 군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 어서 가보게!

S 17. 군수실

- 접견용 탁자 앞에 군수와 민수가 앉아 있다.
- 비서가 차를 두 사람 앞에 놓고 나간다.

군수 : (인자한 태도로) 자! 김민수 주무관! 차 들게!

민수 : (황송해서) 네, 감사합니다.

군수 : (차 한 모금 마신 후) 내가 오늘 아침 왜 김 주무관을 부르지 아는가?

민수 :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군수 : 어제 내가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했네.

민수 : 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군수 : 내가 왜 갑자기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었는지 자네는 알고 있나?

민수 : 죄송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혹시 저희 과장님 승진 때문 아닌가요?

군수 : (민수의 말에 크게 웃는다)

민수 : (멋쩍어한다)

군수 : 아니, 내가 왜 자네 과장을 승진시켜? 그 사람은 승진할 그릇이 아니야. 절대 아니지. 어리석게도 내가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

민수 : (무슨 뜻인지 몰라 군수 얼굴만 본다)

군수 : (인자한 미소 지으며) 어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네. 자네를 특별승진시키기로 말이야.

민수 : (너무 놀라) 네? 제가요?

군수 :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 : 저는 승진 대상이 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군수 : 그러니까 특별승진이지.

민수 : 저는 지금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 내 설명해 주지. (차 한 모금 마시고) 사실 부끄럽네. 그동안 나는 자네 과장을 좋게 보고 있었어. 조직에 충성심이 강한 사람으로 알고 말이야. 그런데 사흘 전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네. 가희라고 했나? ‘해피 투어’에 가서 배탈이 나 병원에 입원한 아이 말이야.

민수 : (군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나는 표정)

군수 : 세상은 넓고도 좁은 걸세. 가희를 담당하던 의사가 내 사촌 동생이었어. 물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내 사촌 동생한테 얘기 다 들었네. 자네가 가희를 얼마나 정성으로 돌보았는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직원을 통해 자네에 대해 좀 알아보았네. 그리고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지 다 알게 되었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 군수, 인자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민수는 황송해 어쩔 줄 몰라 시선을 탁자에 고정하고 있다.

군수 : 그리고 자네 과장은 내 따끔하게 혼내주었네. 자네 과장이 가희 입원 건을 내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도 화가 너무 났어. 내가 좀 심할 정도로 과장을 꾸짖었네.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그리고 절대 잔머리 굴려서 승진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그저 뒷사람에게만 잘 보여서 승진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해. 청렴하고 성실한 직원이 승진해야 공식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 내 소신이야. 과장도 이번 일을 통해 반성 많이 하고 있을 거야.

- 군수 차 한 모금 마신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없이 군수를 바라보고만 있다.

군수 : 그래서 내가 자네를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네.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말이야. 청렴하고 성실한 직원이 결국 승진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싶네.

민수 :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너무 황송해서 작은 목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군수 :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와 악수한다) 앞으로 자네 마음가짐 변하지 말게나!

민수 :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은 얼굴) 네! 명심하겠습니다.

S 18. 군청 복도

- 군수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민수, 복도 끝 외부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과장을 본다.

(과장은 민수를 보지 못한다)

- 몹시 분하고 억울한 표정의 과장.

- 민수, 과장의 모습을 뒤로 하고 복도 계단을 내려간다.

S 19. 복지과 사무실

- 복지과 사무실로 들어오는 민수.

- 민수를 보자 복지과 직원들 모두 일어나서 환호하며 손뼉을 친다.

- 민수, 어쩔 줄 몰라 한다.

팀장 : (민수에게 다가와 포옹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잘 됐어!

장비 : (민수 곁으로 와서) '사필귀정'이란 말이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니었어. 축하해! 김 주무관!

직원 1 : 김 주무관! 오늘 한턱 싸야지!

- 복지과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는 민수의 모습이 보이다가,

- 자리가 비어 있는 과장의 책상과 의자 모습이 보인다.

- 빈자리가 계속 보이면서, 군수실에서 군수가 민수에게 한 말이 들린다.

군수(E) : 청렴하고 성실한 직원이 승진해야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이 내 소신이야. <끝>